

## 문화예술 Latin American Culture

### 보카 주니어스와 리버 플레이트: 리베르타도레스 컵과<sup>1)</sup> 해방자 브랜드센

라우라 리나레스 (Laura Linares)

보카의 거리에는 매력이 넘친다.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다른 곳들과는 달리 거리가 알록달록하다. 수많은 관광객이 침범하고, 수백 개나 되는 기념품 가게들이 있지만 이런 점들이 보카의 매력을 없애지는 못했다. 거리에는 고유한 향기가 있고, 탱고 가사 속 인물들이 생생히 느껴지며, 실제 삶도 넘쳐난다. 거리 모퉁이마다 항구의 낚싯줄이 노동자가 유명 예술가가 된 이야기가 있고, 킨켈라<sup>2)</sup>의 그림이 그려져 있으며, 구불거리는 카미니토 길은 공동주택의 철판 발코니를 무대삼아 연기하던 배우들의 야외 공연 장소가 되곤 했다.

보카의 몇몇 거리는 부엘타 데 로차에서 끝난다. 마누엘리타 로사스<sup>3)</sup>가 전성기 시절 산책을 다닌 곳이자 페드로 데 멘도사 대로가 마탄사 강

- 1) 남미축구연맹 소속 10개국과 멕시코의 프로 축구팀이 참가하는 대회. 1960년에 시작되어 매년 열린다—옮긴이.
- 2) 베니토 킨켈라 마르틴(Benito Quinquela Martín, 1890-1977). 평생 보카의 부두 풍경을 그린 아르헨티나 화가. 배를 칠하고 남은 페인트를 얻어 카미니토를 색칠하기 시작한 것도 킨켈라였다—옮긴이.
- 3) Manuelita Rosas(1793-1877). 아르헨티나 건국 초기의 독재자 후안 마누엘 데 로사스의 딸—옮긴이.

의 마지막 구역과 만나는 곳이다. ‘리아추엘로’<sup>4)</sup>라고 불리는 마탄사 강은 최악으로 오염되어 있으며, 어쩌면 그래서 너무도 부에노스아이레스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리아추엘로

부에노스아이레스 시의 많은 사람이 리아추엘로는 악취를 풍기는 매우 짧은 강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 강은 안 좋은 냄새를 풍기기는 하지만 상당히 길다. 부에노스아이레스 주 동쪽 60km 지점에서 시작해 보카 지구에서 끝나는 데, (수도를 나머지 세상에서 격리시키는 자동차 전용 순환도로인) 헤네랄 파스를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리아추엘로라고 불린다. 헤네랄 파스를 넘기 전까지는 마탄사 강이라고 불리는데, 마탄사[‘도살’이라는 뜻]라는 이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는 미스터리다. 어쩌면 스페인 사람들이 온 뒤에 강어귀에 살던 원주민들을 ‘팜파스 마탄세로스’ [팜파스의 백정 정도의 뜻]라고 부른 데서 연유했을 수도 있다. 어쨌든 그곳에 이러 저러한 식으로 죽음이 넘쳤다는 것만은 확실하다.

보카의 골목들은 녹슬고 시적인 니콜라스 아베야네다 철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 거기엔 아메리카 대륙 최초의 사회주의자 국회의원이었던 알프레도 팔라시오스가 포도주를 마시곤 하던 라 페를라 바가 있으며, 수아레스 가와 네코체아 가가 만나는 모퉁이에서는 젤을 발라 머리를 빗어 넘긴 남자 가수 한 명이 자신의 옛 친구 두 명, 판초 알시나와 발마세다를 영원히 기다리고 있다. 이 모든 것 때문에 보카의 거리들은 노스탤지어와 매력과 마력을 지니고 있으며, 이곳을 찾는 외국인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한다. 물론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사는 모든 사람 또한 이곳을 좋아한다.

4) 리아추엘로는 작은 강이라는 뜻이다—웁긴이.



레스토랑 <라 페를라> 입구의 아니발 트로일로 포스터. 트로일로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으뜸가는 반도네온 연주자였다.

‘모든’ 이라고? 사실은 그렇지 않다. 보카를 적의 영토로 여기는 이들도 있다. 예리한 관찰자라면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재빨리 찾아낼 수 있다. 그들은 고개를 푹 숙인 채 걸으며, 두꺼운 양털 목도리로 얼굴을 감싸고 한여름에도 머리에 구소련 스파이 모자를 써서 위장하고 있다. 적이요 축구계의 사형집행인들에게 정체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이다. 그들은 비밀 임무를 띠고 보카로 가고, 그곳을 빠져나갈 때면 신이 존재한다는 느낌을 받는다. 신의 가호가 아니었다면 기적적으로 살아 돌아가기 불가능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리버 플레이트의 팬들에게 암흑세계의 심장부는 브랜드센 가에 있다. 그 거리엔 신비주의적인 한 번호, 야수의 숫자가 있다. 축구 구단 보카 주니어스의 홈구장 정문인 브랜드센 805라는 번지수이다. 하얀색 바탕에



보카의 대부분의 집은 양철집이다. 20세기 초에 온 이민자들이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집을 짓기 위해 양철을 많이 사용했다. 그러다보니 보카는 전통적으로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서민 동네로 남았다. 그래서 이들의 애환을 달래준 보카 주니어스는 아르헨티나에서 가장 열성적인 팬을 거느리게 되었다.

비스듬한 붉은 띠가 그려진 리버 플레이트 팀의 진정한 팬이라면 그 지점에 멈춰 서서 고개를 들어 하늘을 쳐다보고는 눈앞에 거대한 보카 주니어스 구장이 펼쳐지는 광경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죽었구나 하는 기분을 느낀다. 적어도 일 년에 한번은 거기서 아마겟돈, 즉 신이 묵시록의 네 기사를 상대로 벌인 전투가 치러졌고, 또 앞으로도 계속 치러지리라는 것을 알고 있다. 게다가 불행히도 네 명이 아니라 민첩하고, 전투적이고, 야심적이고, 승리를 갈망하고, 골에 끝없이 굶주린 열한명의 전사들을 상대해야 한다는 것도.



보카 주니어스의 전용구장인 봄보네라. 봉봉(bombón) 초콜릿 상자를 연상시킨다 해서 봄보네라(Bombonera)라고 부르며, 협소한 대지를 최대한 이용하기 위해 관중석을 가파르게 만들었다.

브랜드센 가 805번지와 노란색과 푸른색이 어우러진 무시무시한 경기장이 생생하게 실시간으로 모습을 드러내면 이런 저런 이유로 구장에 잠입한 리버 플레이트 팬은 패배한 다음날 매번 그를 가장 괴롭히는 악몽같은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 왜냐하면 보카 주니어스 구장 근처에 있으면 그는 리버 플레이트가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고, 리버 플레이트의 승리는 결코 존재한 적도 없는 것같은 기분이 들기 때문이다.

경기에서 진 다음날 리버 플레이트 팬은 보카 지역이든, 선의 세력이 거하고 있는 누네스 지구의 모누멘탈 구장<sup>5)</sup> 인근이 되었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모든 거리를 증오한다. 왜냐하면 밤새 그 모든 거리가 벽보로 도

5) 1938년에 개장한 리버 플레이트의 홈구장이다. 벨그라노 지구에 위치해 있지만, 사람들이 종종 벨그라노와 인접한 누네스 지구에 있는 것으로 착각한다—옳긴이.

배되어 전날의 비극을 상기시키고, 패배로는 충분치 않다는 듯 리버 플레이트 팬을 조롱하기 때문이다.

### 누네스

무심코 보면 누네스 동네에 누네스라는 이름의 거리가 있는 것이 당연해 보인다. 특기할만한 점은 누네스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두 명이라는 것이다. 누네스라는 동네 이름은 플로렌시오 에메스테리오 누네스(1834-1900)에서 딴 것이다. 그는 땅을 기증해 기차역 두 개를 지을 수 있도록 했고, 두 기차역 이름은 각각 동네 이름이 되었다. 하나는 사아베드라이고, 다른 하나는 관대한 인물인 플로렌시오 에메스테리오 누네스의 이름을 딴 동네이다. 하지만 누네스 동네에 있는 거리 누네스는 아르헨티나 첫 대통령 베르나르디노 리바다비아의 비서였던 이그나시오 누네스(1792-1846)에게서 따온 것이다. 이런 혼란스런 맥락 때문에 누네스 동네의 누네스 거리를 지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어디에서 있는지 잘 알지 못한다.

예를 들어, 그는 “좋은 아버지는 겨울이 오기 전에 아이들에게 백신을 맞힙니다” 라는 구절이 적힌, 병아리가 주사를 맞고 있는 모습의 벽보를 떠올리며, 아르헨티나 축구에서 리버 플레이트가 유쾌하지 못하게도 암탉 배역을 맡아온 것에 가슴아파한다.<sup>6)</sup> 또한 진한 국물이 담겨 있는 오목한 수프접시 벽보를 떠올리는데, 마치 불만이 있다는 듯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 수프 위에 어떤 나쁜 놈이 이렇게 적어두었다. “또 수프네.”<sup>7)</sup>

무엇보다 리버 플레이트 팬은 희화화되는 것을 혐오한다. 보카 주니어스가 리베르타도레스 컵에서 우승하고(이는 종종 일어나는 일이다) 리

6) 각종 대회의 결승전 등 결정적인 경기에 약한 징크스 때문에 리버 플레이트는 치킨 게임의 암탉, 즉 결정적인 승부를 두려워하는 겁쟁이 팀이라는 조롱을 많이 받았다—옮긴이.

7) 가장 간단하고 평범한 요리인 수프를 자주 먹듯이 안 좋은 상황이 반복될 때 쓰이는 표현. 즉 리버 플레이트가 또 패했다는 의미이다—옮긴이.



유리 진열창 안에 전시된 각종 벽보. 보카 주니어스 구단은 최대 라이벌인 리버 플레이트를 꺾을 때마다 상대방을 조롱하는 구절을 담은 벽보를 거리마다 도배했다.

리버 플레이트가 우승하지 못했을 때(이는 더욱 자주 일어나는 일이다), 브랜드 거리의 예의 이름 없는 정령들은 두 팀의 여정을 일목요연하게 비교한 그림을 붙인다. 한쪽에는 길쭉한 선이 있어 보카 주니어스 선수들이 결승전에서 승리하기까지 아메리카 대륙을 돌며 원정경기를 치른 멕시코, 브라질, 페루, 볼리비아, 파라과이 등을 잇고 있고, 다른 한쪽에는 식탁에서 침실 거리나 뿔까 싶은 짧은 선 하나가 그어져 있다. 잔혹한 농담은 바로 이것이다. “저축을 하는 최고의 방법은 리버 플레이트의 팬이 되는 것이다.”

왜 이곳에서는 보카 주니어스 선수들한테 세계의 장벽을 뛰어넘어 국제적으로 승리하기를, 승리를 통해 국제적인 존재가 되기를 기대하는가? 어쩌면 리베르타도레스 컵에서 보카 주니어스가 거둔 성공이 바로 브랜드

센 거리, 즉 그 거리에 이름을 준 해방자 페데리코 데 브랜드센 장군 덕분이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sup>8)</sup>

브랜드센 장군은 네덜란드인 의사의 아들로 1785년 11월 28일 파리에서 태어났다. 그는 임페리알 고등학교에서 공부했으며, 백일천하에서 마지막 날까지 죽을힘을 다해 나폴레옹을 수호하며 용감히 싸웠고, 워털루 전투의 패배라는 쓴 잔을 마셨다. 이후 환멸 속에서 지내던 브랜드센은 파리에서 베르나르디노 리바다비아와 친분을 쌓게 되고, 그는 브랜드센에게 아르헨티나로 와서 싸우라고 설득했다. 브랜드센은 산 마르틴<sup>9)</sup> 장군을 위해 용감히 싸웠고, 그를 따라 페루까지 갔다. 하지만 산마르틴이 해방된 땅을 시몬 볼리바르에게 넘기자 괴로워했고, 아마도 질투심 때문에 볼리바르가 자신을 체포했을 때는 더욱 괴로워했다. 1825년 초 석방되자 브랜드센은 칠레를 거쳐 아르헨티나로 돌아와 대 브라질 전쟁에 참여하며 전투에 대한 갈증을 충족시켰다. 그는 전장에서 죽었으며, 레콜레타 묘지에 있는 그의 무덤은 국가역사기념물로 지정되었다.

브랜드센의 행적은 결코 식탁에서 침실 거리나 될까 싶은 정도가 아니었다. 그는 너무 훌륭한 해방자였기 때문에 존경받는 인물이기 이전에 왕당파 장군들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다. 산 마르틴이 스페인 사람들과 협상하라고 보낸 토마스 기도에게 한 왕당파 장군이 물었다. “당신들한테는 브랜드센 같은 장교들이 많이 있습니까?” 정직하게도 토마스 기도는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고, 질문한 장군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그랬다면 상황이 훨씬 더 복잡했을 텐데 안심이네요.”

심리분석학적으로 말해서 리버 플레이트의 팬이 보카 구장으로 갈 때는 적진에 들어섰다는 느낌보다 훨씬 더 밀도 있는 감정을 느낀다. 그것은 태고에 대한 향수, 우주가 분리되어 있지 않았던 태초의 혼돈, 즉 모든 것은 하나였고, 빅뱅이 일어나 행성들이 궤도를 돌기 이전에 대한 향

8) 리베르타도레스 컵에서 ‘리베르타도레스’는 ‘해방자’를 뜻하는 ‘리베르타도르’의 복수형이다—옮긴이.

9) 아르헨티나 독립의 영웅—옮긴이.





소위 ‘필레테’ 기법을 이용해 칠한 간이 노상 잡화점. 이 기법은 원래는 19세기 말에 식료품 배달용으로 사용하던 불품없는 수레를 꾸미기 위해 사용되었다. 보카 지구에는 아직도 이 기법이 사용되어 보카 특유의 풍경을 낳고 있다.

수이다. 리버 플레이트는 1901년 보카 지구에서 태어났다. 같은 곳에서 보카 주니어스가 태어나기 4년 전이었다. 충돌을 겪은 뒤 리버 플레이트는 떠나갔다. 돌아오고자 하는 욕구가 다른 방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모순적으로 느껴질 일이 그때 일어났다. 떠난 자들의 영혼은 돌아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확고한 사실, 그 견딜 수 없는 사실을 잊기 위해 라이벌 의식과 원한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 입각해 보면 보카 주니어스 선수들과 리버 플레이트 선수들은 태어나면서 헤어진 형제와 같고, 각각 유산을 절반씩 가지고 있다. 보카 주니어스 선수들이 부모님 집을 물려받았다는 유산분배의 불균형은 있지만,

그러나 보카 주니어스 구단이 창단되었을 때 브랜드센 거리에는 구장이 없었다. 1905년 선수들은 다르세나 수르<sup>10)</sup>의 한 공터에서 연습을 했

고, 2년 뒤 보카 주니어스가 축구연맹에 가입했을 때 그들은 최소한의 기준 요건, 즉 화장실과 탈의실을 갖춘 장소를 물색해야만 했다.

### 브라질 선수들

희비가 엇갈리는 내용의 한 이야기가 보카 주니어스와 리버 플레이트에게 영원히 기억될 것이다. 오랜 세월 회자된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브라질 출신의 훌륭한 두 선수였다. 보카 주니어스의 브라질 선수는 파울루 발렌티모로 그는 리버 플레이트의 전설적인 골키퍼 아마데오 카리소와 특별한 결투를 벌였다. 파울로는 일곱 경기에서 아마데오를 상대로 열 골을 넣었으며, 엘 클라시코<sup>11)</sup>에서 가장 골을 많이 넣은 보카 주니어스 선수로 등극했다. “나머지 것들은 다 잊어버리세요.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리버 플레이트를 상대로 골을 넣는 것뿐입니다.” 이것이 보카 주니어스 구단주 알베르토 J. 아르만도가 그를 보카에 데려올 때 한 주문이었다.

리버 플레이트의 훌륭한 브라질 선수였던 델렘의 운명은 이와는 달랐다. 1962년 리그에서 보카 주니어스의 골키퍼 안토니오 로마는 그의 페널티킥을 막아서 잊을 수 없는 기억을 선사했다. 당연히 델렘에게는 커다란 좌절이었다. 그러나 이후 델렘은 리버 플레이트 하급 팀들의 감독이 되어 미래에 보카 주니어스를 좌절하게 만들 선수를 발굴함으로써 자신이 당한 것을 갚아주었다. 그가 발굴한 선수들은 마르셀로 가야르도, 파블로 아이마르, 산티아고 솔라리, 하비에르 사비올라, 에르난 크레스포 등이다.

만형이 쫓겨나서 누녜스 쪽으로 떠난 사이 보카 주니어스는 이 경기장 저 경기장을 전전했다. 구단의 경영진들은 가까운 데마르치 섬에 있는 땅을 마련하느라 돈을 많이 날리기도 했다. 이후 1914년 그들은 율데 지역에 땅을 임대했지만 거리가 멀다보니 1,500명의 회원 중 1,200명이 탈

10) ‘남쪽 부두’ 라는 뜻—옮긴이.

11) El Clásico, 라이벌 팀들 간의 시합을 지칭하는 이 용어가 보카 주니어스와 리버 플레이트 간의 경기에도 적용되고 있다—옮긴이.

퇴해버렸다. 남은 300명과 함께 보카 주니어스는 다시 보카 지구로 돌아와 미니스트로 브린 가(街)와 센젤 가(街)가 교차하는 곳의 한 마구간 터에 자리를 잡았다. 그 근처에 아파트를 짓기 위한 벽돌과 바닥재를 저장하는 창고가 하나 있었는데, 창고 주인이 소음을 견디지 못하고 그들을 쫓아내 버렸다. 모든 곳에서 쫓겨난 이들 무리는 마침내 1923년 브랜드센 거리에 터를 잡았다. 그들은 거기에 나무로 만든 관람석을 급조했다. 1938년에는 시멘트 구장을 짓기 위해 초석을 놓았고, 1940년 6월 2일 ‘봄보네라’라는 이름의 구장에서 첫 경기를 치렀다. 봄보네라 구장은 토목기사 호세 텔피니의 걸작으로, 그는 최소한의 공간에 ‘축구의 대성당’으로 여겨지는 구장을 지었다.

거기서 치른 첫 경기는 뉴웰즈 올드 보이스<sup>12)</sup>를 상대로 한 것이었고, 보카 주니어스가 2대 0으로 승리했다. 이후 그 ‘대성당’에서는 천 번의 미사가 열렸다. 기도, 봉헌, 수난이 이어지는 사이 메시아는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어떤 때는 9번 유니폼을 입고, 또 어떤 때는 10번 유니폼을 입고 여러 차례 부활했다. 봄보네라 구장에서는 대규모의 교향곡 연주회들이 열렸다. 완벽하게 음정이 맞는 합창단이 노래를 불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다. 태양이 떠오르는 기적 앞에서 신도들은 기도문을 외었고, 경외심으로 무릎을 꿇었다. 비 내리는 오후면 그들은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었다. 봄보네라 구장에 비가 내리는 것은 폭풍우가 올 것이라는 일기예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일이었다. 왜냐하면 그것은 비가 아니라 항상 그곳을 지켜왔던 이름 없는 팬들의 눈물이기 때문이다.

[정승희 옮김]

---

라우라 리나레스(Laura Linares) — 아르헨티나의 여러 잡지와 일간지의 편집자로 활동  
정승희 — 고려대학교 서어서문학과 외래교수

---

12) Newell's Old Boys, 아르헨티나 로사리오를 기반으로 한 프로 축구 구단—옮김이.